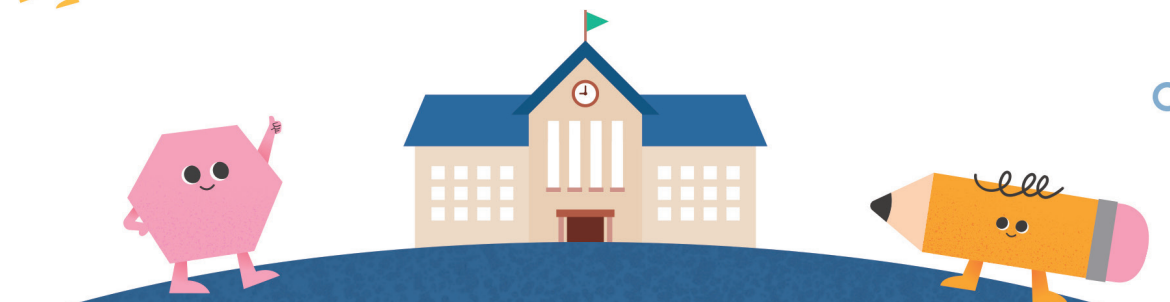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



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정보제공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려드려요



상호소통

고민을 서로 나누고
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요



행복한 교육

12

vol.497 2023 DECEMBER



02 네 꿈을 펼쳐라

경북 포항제철고등학교 수학동아리 'Math MVP'
재밋는 수학 세계로 초대합니다!

06 에듀피플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도전장

10 아듀 2023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3 교육정책'

COVER STORY

포항제철고등학교(교장 노정은) 수학동아리 'Math MVP'는 수학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싶은, 열정 가득한 아이들이 모두 모인 연합 동아리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봉사, 랜선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박성민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김홍순
사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 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 14 다문화 교육정책의 의의와 미래
- 18 경기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다
- 22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
- 2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
이주배경학생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주는 주춧돌
- 30 다(多)양한 문화(文化)를 담은 꽃(花)이 만개한 예술의 정원:
밀양영화고등학교 시나리오 수업과 연극·영화 예술 활동



- 02 네 꿈을 펼쳐라
경북 포항제철고등학교 수학동아리 'Math MVP'
재밌는 수학 세계로 초대합니다!
- 06 에듀피플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도전장
- 10 아듀 2023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3 교육정책'
- 34 교육웹툰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운다!
- 36 교육포커스
인공지능 한국어 논·서술형 자동채점 연구의
현황과 과제
- 40 교육자치시대
전라남도교육청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환경 동아리 155팀 만들어져...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
- 44 진로직업인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
SK플라즈마 민경석 매니저
세계 곳곳에 '삶의 희망'을 심다
- 48 일상의 씬표
조선 후기 사대부 가옥 선교장의 겨울 정취



- 52 이야기 인문학
북유럽 문학,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다
- 54 교실혁명
자꾸 하고 싶은 매력적인 평가
책 읽고 구술평가 하기
- 58 현장중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
진화하는 사이버·학교폭력, 어디까지 왔나
- 60 명예기자 리포트
숲을 담은 '생태숲학교'에 가다
- 62 이달의 교육뉴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외
- 64 예쁜 우리말
12월호 원고를 붙이면서(?)



경북 포항제철고등학교
수학동아리 'Math MVP'

재밋는 수학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난 10월 21일 경상북도 구미시
동락공원에서는 경북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인공지능도 반한 수학 디자인
랜드'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은 동아리가
있었다. 축제의 장인 2023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한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장 노정은) 수학동아리 Math
MVP가 바로 그 주인공. 어렵기만
한 수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수학을 알려주고
싶은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 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Math MVP는 수
학교구 체험 및 교육봉사 동아리인 Math
VIP와 인공지능 수학 탐구 동아리 Math AI, 수학·
과학 융합탐구 동아리인 Science VIP를 연합한
동아리이다. VIP는 '미래를 향한 비전(Vision)으
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창의적 생각으로 진취성
(Initiative)을 가지고 주도하는, 정해진 목표를 향
해 열정(Passion)을 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수학적 호기심 키우는 나만의 π (파이)

“본인이 직접 만든 π 열쇠고리도 좋아하는데 Σ
(시그마)로 디자인한 머그컵이나 에코백 만들기도

좋아해요.” Math VIP 동아리장인 조재영(2학년) 학
생은 “올해 열린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관
람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때 열심히 준
비한 보람을 느꼈는데 상을 받아서 더 기분이 좋았
다.”라고 전했다.

게임 개발 프로그램인 유니티 프로그램으로 자
체 제작한 스트링아트 드림캐처 만들기 외에도 일러
스트 AI 파일로 디자인하고, 레이저 커팅기로 제작
해 3D프린터로 출력해 보는 다양한 체험들은 언제
나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오정은 동아리 지
도교사는 “같은 모양의 조각을 이어 붙이는 평면디
자인 테셀레이션이나 폼블록, 레진아트로 만든 수학
기호 열쇠고리 등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활
용해 수학과 친근해지도록 구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문석 지도교사는 “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
했을 때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동아
리에서 만들지 못할 것이 없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원들은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뿐 아니라 창
의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Math AI의 동아리장인 공석진(2학년) 학생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방탈
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진법 계산 등 인
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동안 스스로 한 단
계 성장한 느낌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Math MVP는 지난 9월 열린 2023
포항 수학 체험전에서도 주관학교 동아리로서 활
약했다. 수학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수리생물
학&미적분(코로나19 종식 시기 예측) 연구를 수학
동아리 학술제에서 발표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또 교내 수리과학 심포지엄 SCI-
Math, 메타버스 Math 페스티벌 등을 통해 타 과목
과 수학을 융합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 수학동아리 Math MVP는 매년 3:1의 경쟁률을 뚫어야 부원으로 선발될 수 있을 정도로
교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이다. 교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원들

2 3 Math MVP는 2023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학생 동아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위)
행사장 Math MVP 동아리 체험 부스 (아래) (사진 제공 포항제철고)



- 4 Math MVP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험 도구 등을 활용해 수학과 친근해지도록 한다.
- 5 랜선 클래스 등을 통해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

1순위 덕목은 '인성'... 꾸준한 봉사활동 눈길

2015년 교내 수학동아리에서 출발한 Math MVP는 포항제철고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이다. 매년 약 3:1의 경쟁률을 뚫어야 부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주은솔(2학년) 학생은 “입학하기 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홍보영상을 보자마자 꼭 부원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부원들은 지역 청소년 공부방으로 교육 봉사를 다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 복지센터와 협력해 랜선 수학 교실을 운영했는데, 미리 나눠준 체험 키트를 가지고 랜선으로 수학 체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동아리 유튜브 채널에 문제 풀이 영상을 공유하고 메타버스에서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이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 최수혁 학생도 동아리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다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Math AI가 운영하는 랜선 클래스도 볼 수 있다. ‘오픈 AI-챗GPT에 대한 클레

스’, ‘딥러닝을 활용한 독성 한약재 감별’, ‘알파폴드(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프로그램)와 딥러닝 생명과학에 대한 탐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Σ 기호가 새겨진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및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밌는 수학 알리기에 열정을 쏟아 온 Math MVP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5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그 해 전국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최우수 동아리상을, 김문석 지도교사는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Math MVP는 올해에도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6회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 교사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수학동아리이지만, 부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봉사와 희생정신과 같은 인성”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동아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Mini Interview



공석진(2학년) 학생

AI 연구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선정된 포항제철고로 진학을 결심했다. 특히 Math AI 활동은 인공지능과 수학의 융합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고 현재는 동아리장을 맡고 있다. 신입 부원들 앞에서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려줄 때 열정이 가득한 부원들의 눈망울이 기억에 남는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윤리 표준 규범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미래의 나! 기대하고 있다!

조재영(2학년) 학생

신문 기사를 보고 이미 동아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활동하게 되었다. 책으로 배우는 수학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나누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하다. 동아리장으로서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티브 잡스처럼 남은 학창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곳으로 진학하여 미래 컴퓨터 혁신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수민(2학년) 학생

체험하는 수학을 하고 싶었기에 1학년 때는 Math VIP 활동을 했었다. 이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딥러닝 AI 알파폴드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Math AI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명공학 중에서도 유전병 치료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번에 AI 페스타(Festa)에서 주 강사 역할을 맡아 알파폴드에 대해 발표하게 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한 인공지능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에게 늘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내 인생의 본보기이다.

노유림(2학년) 학생

코로나19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했던 ‘매쓰티벌’ 축제를 체육관에서 1·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진행해 가슴이 벅찼다. 올해 매쓰티벌 사무국장을 맡아 행사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행사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획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해 준 부원들에게도 정말 고마웠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실현해 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보다는 에너지를 받는 타입이라 대면 활동이 가능했던 올해 정말 즐겁게 활동했다.



주은솔(2학년) 학생

수학은 공부한 만큼 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다. 그래서 Math VIP에서는 즐겁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동아리 홍보영상을 보고 활동하게 되었다. 경북 청소년 페스티벌 동아리 체험 부스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할 때 정말 뿌듯했다. 땀방울이 맺힌 눈을 직접 마주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순간이 정말 재밌다. 1학년 때 온라인으로 활동할 때보다 훨씬 즐거웠다. 이제 곧 3학년이 되면 많이 활동하기 힘든데 후배들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도전장

2016년 6월, 제11대 총장에 부임한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은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대학 발전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또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위한 교육부 주관 대입정책자문회의 의장을 맡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1년을 보내야 했다. 수능일인 지난 11월 16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총장실에서 김헌영 총장과 만났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대입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민감한 문제들이 얹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거 자체가 매우 예민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대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대입’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맞춘 대입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위한 대입정책자문회의 의장을 맡았던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은 만난 11월 16일은 2024년 대입 수능일이었다. 이번 개편 시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자문회의에서는 고교 및 대학 관계자, 언론,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면서 미래 대입제도의 개편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이번 대입 개편안은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영 총장은 2028 대입 개편안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 유불리 논란’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등 대입 공정성이 크게 강화되고, 고교학점제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응시하도록 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총장은 “고교 내신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어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 학습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자문회의를 주재한 의장으로서 좀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숙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진 않다.”라면서 “이번 개편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좀 더 보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강조하기도 했다.

‘가장 혁신적인 대학, 역량 있는 강원대학교’로!

2016년 6월, 강원대 제11대 총장에 부임한 김 총장은 성공적인 4년의 임기를 마친 후 12대까지 연임하면서 올해로 8년째 강원대학교, 더 나아가 강원 지역의 교육생태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9년에는 강원대가 전국 국립대 최초로 ‘캠퍼스 혁신과 크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21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대학30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었다.

“부임 이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했어요. 총장 부임 당시 우리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어요.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하고 거점국립대의 위상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혁신을 추진했고, 2년 만에 ‘차울개 선대학’으로 선정되어 대학의 명예를 회복했지요.”



김 총장의 부임 이후 강원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학의 위상도 ‘가장 혁신적인 대학, 역량 있는 대학’으로 크게 달라졌다. “이런 외형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의 진취적인 자세를 도모하는 내부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더 큰 성과였다.”라고 김 총장은 소개했다.

“부임하면서 ‘KNU 비전 2030’을 통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어요. 이 비전은 강원대가 분단된 한국의 현실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강원대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의 문제를 탐구하는 중심지가 되자는 것이지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을 더욱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세계 100위권, 국내 대학 3년 연속 6위에 올랐어요.”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연구나 교육 성과가 아

닌, 대학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대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였노라고 김 총장은 들려주었다. 부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강원대의 혁신은 물론 강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거점 국립대인 강원대를 중심으로 도내 15개 대학과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RIS사업은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등을 3대 핵심분야로 하여 2025년까지 추진된다.

“글로벌대학30으로 지방대학의 혁신모델 완성할 것”

강원대는 올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응모하면서 강릉원주대학교와 함께 ‘강원 1도 1국립대학’을 혁신모델로 제시하였다. 강원대가 캠퍼스별로 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T자형 인재’는

전문 지식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원과 인프라를 공유 또는 연합하거나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각 캠퍼스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산업과 문화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모델이다. 춘천-강릉-삼척-원주 4개의 캠퍼스 모델은 근거리에 있는 두 대학이 통합하는 차원이 아닌,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혁신모델이다. 김 총장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의미한다.”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5년부터 강원도연합대학 체제 구축 등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 글로벌대학30 사업과 함께 비로소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경우 춘천캠퍼스는 ‘교육연구 거점’, 삼척캠퍼스는 ‘지역산업 거점’, 원주캠퍼스는 ‘산학협력 거점’, 강릉캠퍼스는 ‘지·학연협력 거점’으로 각각 특성화하여 지역밀착형 캠퍼스로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캠퍼스 간 연합과 통합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일원화하여 운영하되, ‘캠퍼스 총장제’를 도입하여 각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챗GPT와 함께 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강원대는 ‘창의·협동 인재’와 ‘T자형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김 총장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T자형 인재’는 전문 지식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2018년에 ‘미래

융합가상학과’를 개설,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지적재산권학과, 화장품학과, 양조학과, 반도체학과 등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개설한 미래융합가상학과 전공과목은 첫째 4개에서 현재 39개 학과로 늘어났다. 김 총장은 “사회의 산업변화에 맞추어 부전공, 복수전공 등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권을 누리 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융합가상학과 전공과목을 5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 이끈 총장으로 기억되었으면...”

강원대 총장 부임 이후 제24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한 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지방대학 뿐만 아니라, 실은 국내의 모든 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김 총장은 ‘지방대 편입학 총괄 정원제’ 도입과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학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지난 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학이 이룬 성과와 발전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김 총장은 “그동안 이룬 성과와 경험을 대학의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6개월여의 임기도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⑦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3 교육정책’

교권 보호/교권 회복

01

지난 7월, 한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무더위 속에서 선생님들은 교권 회복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교육부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교육 현장, 학부모,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였다.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 발표했으며, 9월 21일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02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2023년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 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지난 4월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해커톤을, 7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해 100여 명의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AI 디지털교과서에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은 개발사가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에 반영했으며, 개발사들은 9월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유보통합

03

정부는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정책의 중심에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함으로써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도 설치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늘봄학교

04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초등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서비스(아침/틈새/저녁돌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신입생의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다양한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코딩 등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시도교육청의 214개교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2학기에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추가로 지정, 245개교가 증가하여 현재 459개교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밖에도 방과후·돌봄 관련 전문가그룹인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운영,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05

교육부는 지난 10월, 대입의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 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반영하였다. 시안을 살펴보면,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었다.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해 5등급제로 개편하고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12월 중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대학

06

올해 시작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해 일반 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학의 관심이 높았다. 각 대학은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 등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지난 6월, 15개의 혁신기획서를 선정(예비지정)했으며, 이후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지난 11월 10개의 글로벌대학을 선정했다. ②

※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 조회수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설정하였음. (2023.1.1.~2023.11.22.)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2020년 기준 이주배경인구가 218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주배경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현재와 미래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 교육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23~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문화 교육정책의 의의와 미래를 살펴보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하나로 꼽히는 경기 시흥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다문화교육 사례와 국내 최초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인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소개한다. 그 밖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과 밀양영화고에서 다문화학생들과 함께한 시나리오 수업, 연극·영화 예술 활동을 소개한다.

- 14 다문화 교육정책의 의의와 미래
- 18 경기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_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다
- 22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_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
- 2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_ 이주배경학생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주는 주춧돌
- 30 밀양영화고등학교 시나리오 수업과 연극·영화 예술 활동



Special Theme

다문화 교육정책의 의의와 미래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요성

다문화 교육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이주배경인구가 220만 명 가까이 되고(2020년 기준, 218만 명으로 총인구의 4.2%, 통계청),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 교육정책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배경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존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높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정책은 이주배경이라곤 전혀 없이 한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정책이다. 유년 시절, 학령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정책이 뜻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교육정책에서 이주배경학생의 범위?

- 교육정책 대상으로서 이주배경학생은 내국인/외국인으로 나뉘며, 내국인은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중도입국으로 나눌 수 있음.

내국인		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외국출생, 한국체류)	

이주배경학생 현황과 인프라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이주배경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며 매년 기록을 경신해왔다.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약 6만 8천 명(전체학생의 1.1%)이었는데, 2023년에는 어느덧 약 18만 1천 명(전체학생의 3.5%)까지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앞으로도 이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저출생 현상이 겹치다 보니, 지난 10년간 이주배경학생 수는 2.7배 증가하였는데, 전체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3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7%), 서울(11%)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전체학생 중 비율로 계산하면, 전남(지역 전체학생의 5.9%), 충남(지역 전체학생의 5.4%)이 가장 높다.

이주배경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존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높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이주배경학생이 2.7배 늘었는데, 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외국인 학생은 무려 8.6배나 늘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앞으로 한국어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학생이나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을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현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중도입국 학생이 5명 이상일 때, 설치 권장). 또는 시도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 4년간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국의 한국어 학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1.6배가 늘었다. 2019년에는 326개였는데, 2023년에는 527개다. 그러나 한국어 학급당 10명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전체 외국인 및 중도입국 학생 대비 한국어 학급의 수용인원은 10.3%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외국인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에게 한국어 학급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어 학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학교의 공간 문제, 학급을 지원할 인력 문제, 예산 문제가 있으며, 또 이주배경학생과 다른 학생을 교내 수업 시간에 분리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단순히 늘리면 된다고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림 1 - 10년간 이주배경학생 구성별 증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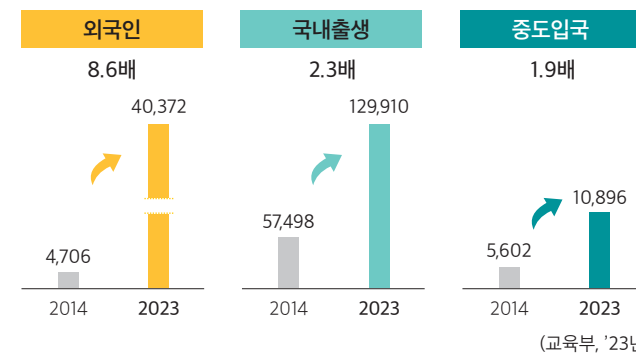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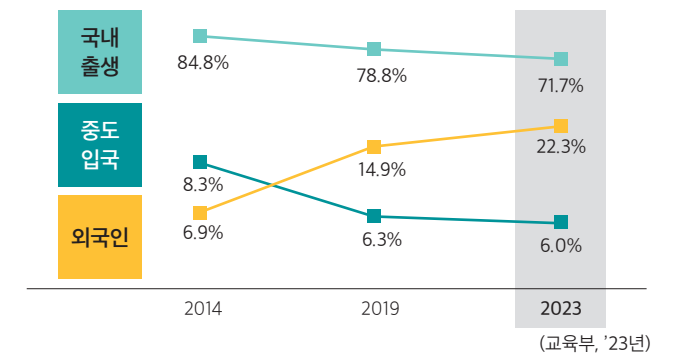


그림 2 -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 구성비(%)



정부의 노력

교육부는 올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을 발표하면서, 이 방 안에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역거점의 ‘한국어 예비학교’가 그것이다. 각 학교의 사정이 다 다른데도 학교와 교원에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때 일어나는 통합의 효과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예비학교’는 아주 기초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분리의 효과를 낳게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원적교가 있는 상태에서 3개월~1년의 위탁교육 형식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출석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을 통해서 교육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모델은 기초 생활한국어나 기초 학습한국어는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담당하고, 교과수업 등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 수업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확산시켜 갈 생각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경주의 한국어교육센터, 경기도 안산의 한국어 공유학교가 그 사례이다. 이곳은 이미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두 군데 모두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지내는 것을 보면서 몽클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다.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방식의 한국어 예비과정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3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 주요내용

비전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3대 방향	① (인식 전환) 취약·소외계층 → 공동체 일원 ② (학교부담 경감) 학교단위 대응 → 지역중심 지원 ③ (정주형 정책) 단순 적응지원 → 우수인재 양성
핵심 과제	①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원적교 있는 상태에서 외부 위탁교육) 운영(’24년 말~, 40개) ② 이중언어 등 강점개발을 위한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신설(’24년~) ③ 다문화 밀집학교 대상 △한국어 학급 △지원인력 △방과후 과정 등 집중 지원(’24년~)

교육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모델은 기초 생활한국어나 기초 학습한국어는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담당하고, 교과수업 등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 수업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정책의 미래

교육부는 올해 2개의 큰 다문화 교육정책 성과를 냈다. 첫 번째는 최초로 다문화 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을 발표했다<그림3 참조>. 이 방안을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앞으로는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24일, 「초·중등교육법」에 최초로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 교육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한국어 학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갖게 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 내의 상호공존의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교육부가 올해 이렇듯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다문화 교육정책을 더 적극 추진한 것은 올해를 하나의 계기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점진적인 확대가 아니라, 정책을 도약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 현장의 요구는 아직도 드높다.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서두에 썼듯 우리가 모두 ‘공존의 시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매년 모든 교원(15시간)과 학생(2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그래도 담당자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올해 마련했다는 것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내년을 시작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문화 교육정책은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늘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오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

경기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전국 최초 무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및 학점제를 운영하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이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사회 주인공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연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학년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아이들의 일관되고 연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23%, 중학교 45%, 고등학교 70% 정도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교육 가치로 두고 이타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성을 키우고자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국제교류 등을 통해 키워가는 공동체성

중학교 과목 중 지역교육봉사라는 과목이 있다. 이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된 반 중,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로 구성된 반이 있다. 이 반의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푸른지역아동센터의 이주배경 초등학생들에게 매주 금요일 6~7교시에 한국어, 수학, 영어 등을 학생들이 기획하여 교육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AI 프로그램 중 '퀵드로우(Quick Draw)'를 이용하여 한글교육과 접목하여 가르치는 재미있는 수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본인들도 능숙하지 않은 한글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기획력 등 여러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이

- 1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 23%, 중 45%, 고 70%에 이른다. 주도적으로 탐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 2 한 학생이 투자유치를 위해 자신이 기획한 삼푸 상품기획서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 보니 교육을 받는 이주배경 초등학생들도 매우 즐겁게 수업받는다.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이 수업을 아동들이 너무 기대한다고 이야기해주며, 매시간 달라지고 있는 수업이기에 다음 시간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었다.

고등학교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배우는 각종 프로젝트 과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관심 과목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0학년 학생들은 1쿼터에 시흥시의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제안팀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2쿼터에는 건축, 의상, 영화음악, 소설, AI 등으로 주제를 나눠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3·4쿼터에는 국제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지정학적 갈등, 환경문제, 인권 문제로 나눠 탐구하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활동을 한다.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통언어인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하며 팀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로 선정되어 태국의 치앙마이 와리학교(Varee Chiangmai School)와 온오프라인으로 교류하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우만평)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태국치앙마이명예영사관에서 한국전 참전 태국용사 가정을 초대하여 평화콘서트를 기획 운영하였다. 또한 10학년 또래 학생 중 미얀마 난민 학생들이 있어, 미얀마 난민 친구를 이해하고 함께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시도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 구호활동을 하는 WEAVE(NGO)와 함께 난민 문제를 고민하고 여러 평화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파업대

학교(Payap University) 탐따이(TamThai) 교수의 평화 특강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 4쿼터에 와리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성장을 모색하는 '하우스'

군서미래국제학교에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21년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되어 올해 정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들어온 하우스가 존재한다. 하우스는 크게 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는데 첫째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며, 둘째 함께 어울리는 공간, 셋째 자신의 학습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곳, 넷째 한 학생을 도와주는 여러 명의 보호자라는 큰 틀을 지닌다.

중고등 하우스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 도서를 활용하여 국적과 나이, 문화를 뛰어넘어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초·중고 통합하우스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며 올해는 학교급을 넘어 후배와 선배,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와 협동심,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플래시몹 공연을 계획하여 학교 축제 때 하우스별로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급, 언어, 문화가 모두 다르기에 연습 초기에는 언어소통과 의견을 모으고 공연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 성장을 만들어내듯 학생들은 그 시간을 통해 인내하는 방법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맞춰가고 설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나와서의 다름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3 4 군서미래국제학교 제2회
꿈한울축제 모습
5 태국의 치앙마이 와리학교와
온오프라인으로 교류하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우만평)
프로젝트’를 함께 하였다.
한국전에 참전한 태국용사
가정을 초대해 진행한
평화콘서트

학생들로 성장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초중고
가 함께 모여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하우스는 앞
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군서미래국제학교만의
특별한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
화하고 성장해 갈 것이다.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로 성장하는 IB PYP 후보학교

“자기주도적 탐구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을 기르는 학교”

이것은 군서미래국제학교의 IB PYP 교육목표
를 담은 사명문이다. 이 사명문 안에는 학생들이 살
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교사들의 통찰,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있어 군서미래국제학교가 가지고 있
는 가치와 책임이 담겨 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초
등학교 과정은 IB 관심학교(2023.3.~2023.7.)를 거
쳐, 올해 7월부터는 경기도 공립학교 중 최초로 IB
후보학교로 승인되어 IB 프로그램 안착을 위해 전

력을 다하고 있다.

IB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논의는 배
움의 내용 자체에서 배움의 방법으로 그 초점이 옮겨
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평생학습자로서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 여정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 수업
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에
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협력하여 동물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이주배경학
생인 이유나(가명)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3학년
파키스탄 국적 학생인 티파니(가명)는 노트북을 사
용하여 모국어인 영어로 동물의 수컷과 암컷의 차
이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탐구 과정에 참여하고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경험
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주도성이 향
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배경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배경지식이 부
족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배
경학생이 가진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수업도 있다. 8·9학년 그린에너지 수
업에서는 같은 국적별로 팀을 구성하여 모국의 환
경오염 사례와 극복 사례를 공유하였고 10학년 과
학 시간에는 모국의 유명 과학자를 조사하고 발표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어 시간에는 모국의 시를 친
구들에게 소개하고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 다문화 언어강사는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 함
께 참여하여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한국어로 발
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때, 다문화 언어강
사의 역할은 단순히 선생님의 설명을 번역하여 전
달하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따
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다양한 외국어 수업이 개
설되어 있어서 한국어 이외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
고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
어 수업에서 퀴즈 맞추기 활동에 러시아권 학생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OO야, 도와줘”를 외치면 도우
미 학생이 힌트를 주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학생과
러시아권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서로 알고 있는 어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휘(한국어, 러시아어)를 활용하여 러시아어로 쓰인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
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발
견하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호 협
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활동을 통해 고마운 마
음을 표현하고 서로 칭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이었다. 이주배경학생은 도움을 받는 역할에서 벗
어나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경험함
으로써 친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
양한 교육의 접근은 단순히 이주배경학생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이
해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문화 교육의 혁
신적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

아침 9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쿨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약간은 어색하지만 누구보다도
밝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아침은 시작된다.

외국인 학생들이 밀려드는 경주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질문을 던진다. 왜 다른 곳이 아닌 경주에 한국어교육센터가 생겼는지, 관광도시인 경주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다. 보통 생각하듯이 경주는 관광도시가 맞다. 동시에 울산, 포항과 같은 큰 공단 사이에 있어 작은 공장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투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경주에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외국인, 특히 고려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경주시 성건동은 과거 경주의 중심가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가게 간판이 러시아어로 바뀌었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경주에 사는 외국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고려인들이다. 고려인의 외모는 한국 사람과 비슷하지만, 고려인 4, 5세는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려인의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아이들은 주소지의 학군에 있는 학교로 몰려들었다.

2023년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경북의 학생 중 다문화학생 수는 12,240명이고 그중 중도입국 학생 수는 375명, 외국인 가정 학생 수는 1,254명이다. 2023년 경주지역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학생 2,471명 중 중도입국 학생 수는 61명, 외국인 가정 학생 수는 1,035명이다. 이 통계만 보아도 경주에 외국인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창기에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외국인 학

1 '선생님 고맙습니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

2 경주한국어교육센터 2기 수료식



1



2

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학생, 교사 모두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국인의 비율이 점점 줄고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비단 이 학교만의 현상이 아니라 경주지역 곳곳에 나타난다. 2023년 현재 경주의 한 학교의 유치원은 100%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다.

전국 최초 한국어교육 위한 대안교육기관

2019년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짓기 위한 설립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3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옛 노월국민학교 부지에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경주 시내에서 외국인 학생이 제일 많은 초등학교로 후보지를 정하였으나 센터의 학생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염려와 외국인이 더 밀집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반대에 부딪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후보지 중 옛 노월국민학교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은 외국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노월국민학교 이후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다 휴가처럼 변해버린 이 부지에 깨끗한 새 건물을 짓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해 가겠다고 경상북도의원,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 설득하였다. 처음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폐교가 새로운 건물로 바뀌고, 운동할 수 있는 깨끗한 운동장이 생기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시골에 울려 퍼져 동네에 생기가 돈다고 이야기한다.

전국 최초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기에 관내 홍보를 위해 지난 2월 경주지역 초·중고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센터에 초청해 한국어교육센터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업무 진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선생님, 나 이거(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좋아요.
다시 오고 싶어요!”

긴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첫 학생 선발

2022년 9월 1일 초등교사 1인이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 파견되어 건물 설립과 교육과정 등을 준비하였다. 2023년 1월 1일 행정실장 및 시설관리직 각 1인을 발령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 중등 파견교사, 보건교사,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었다. 경주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센터의 직원들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국어교육 전문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두세 사람 뭉을 해오고 있다. 업무 초기에는 건물 및 기자재 등이 갖춰지지 않아 경주교육지원청에 터를 잡고 경주한국어교육센터 개관을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육강사, 방과후강사, 이중언어강사를 선발하였다. 한국어교육강사는 한국어를 전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한국어교원자격증,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서류심사, 심층면접, 한국어교육 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등을 통해 뽑았다. 방과후강사는 심층면접 및 자신의 전공에 대한 실연, 이중언어강사는 심층면접 및 러시아어 즉석 번역을 통해 선발하였다.

그리고 경주의 모든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1기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선발 기준은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기초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처음이라 얼마나 모집이 될지 걱정하였는데 예정 인원보다 2배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어떤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지도 큰 고민이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2023년 3월 21일(화) 드디어 개소식을 하게 되었다. 개소식에 미리 선발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표와 교육감, 경상북도의원, 경북교육청 관계자, 각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 경주시청, 경주 초중고 교장, 다문화 업무 담당교사,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개소식 때는 건립 경과보고, 관련 영상 상영, 포항다문화어머니합창단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계의 사람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어 집중교육과 체험 위주 프로그램 병행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서의 교육은 기수별로 이루어지며 기수별 정원은 80명으로 경주 관내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다. 2023년은 총 3기의 교육생을 교육하는데 1기는 4월 3일~6월 30일, 2기는 7월 3일~10월 20일, 3기는 10월 30일~2024년 2월 2일로 구성하였다. 기수별로 3개월(13주, 60일 내외) 동안 오전에는 한국어 집중교육(4시간), 오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2시간) 등 매일 총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어 집중교육은 한국어 수업(3시간)과 한국어 집중프로그램(1시간)으로 한국어(KSL)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기초 의사소통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능력진단-보정시스템(ko-ls.edunet.net)으로 진단검사 및 보정학습, 성취도 검사 등을 진행하여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예체능 위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며 체험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 현재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은 K-POP 댄스, 디자인, 미술, 요리, 아로마, 보드게임, 스포츠, 합창 총 8가지 수업이 진행 중이다. 오전에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오후에는 체험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체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 다시 오고 싶어요~”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경주의 초중고 선생님들께 한국어교육센터의 역할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기초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과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마음을 상담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어교육강사, 이중언어강사, 방과후강사와 교직원들이 함께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진행하였다.

기수별 교육이 끝난 뒤 학생, 학부모,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친절한 선생님들이 천천히 꼼꼼하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서 좋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마음 편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을 주었다. 학부모들은 센터에 다니면서 입국 초기에 한국 문화와 한국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문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현장 교원들의 의견으로는 외국인 학생이 밀집했는데 센터로 분산되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고 중도



3 오전에는 한국어 집중교육, 오후에는 체험을 통해 한국어를 체득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 체험

입국하여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에 빨리 적응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앞으로 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면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 학교 현장,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나 이거(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좋아요. 다시 오고 싶어요!”

2023년 10월 20일, 2기 학생들이 수료식을 마치고 마지막 스쿨버스를 타기 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행복한 3개월을 보내고 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귀하는 학교에서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센터에서처럼 밝고 즐겁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㉞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

이주배경학생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주는 주춧돌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이라 함)을 운영 중이다. ’23년 목표 지원 멘토가 4,000명이었고 ’24년에는 사업예산이 2배로 확대(예정)되어 8,000명의 멘토를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멘토링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내 센터(가족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멘토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배경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국내로 이주해온 학생(다문화, 탈북, 중도입국 학생 등) 의미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이란?

멘토링의 일반적 정의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대일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이다.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며 조력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한다. 멘토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티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학업적·직업적·사회적·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지하고 가르치며, 상담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멘토링의 정의에 따라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은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3년도 사업규모는 67억 5천만 원, 목표 지원 인원(대학생 멘토)은 4,000명이다. 대학생 멘토의 경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지도)교수 1인의 추천을 받으면 선발 가능하고 타 국가장학사업(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에 비해 장학생 멘토 선발 시 성적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첫 번째 특징이다. 또한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간당 장학금(교내: 9,160원, 교외: 11,150원)에 비해 활동시간당 지급되는 장학금이 활동 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도시는 12,500원,

표 1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개요

사업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23년 사업예산: 67.5억 원 • ’23년 지원인원: 약 4,000명	• (지도)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대학 재학생 * 성적 및 소득 기준 없음	• 장학금(활동시간당) - 도시: 12,500원 - 농어촌: 15,000원
		- 1일: 8시간 - 1주: 20시간(학기 중)/ 40시간(방학 중) - 1학기: 520시간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멘토링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내 센터(가족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멘토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은 15,000원으로 높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이는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는 점과 원거리 소외지역에 대한 멘토링지원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과 연관이 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주요 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의 참여 주체는 대학, 멘토, 활동 기관, 멘티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학은 국내 대학 중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한 대학을 의미하며 ’23년에는 74개교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멘토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의 재학생으로 지원 기본 요건을 갖춘 학생을 의미한다. 활동 기관은 멘토링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전국 초중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시설, 국공립 유치원 등이 활동 기관에 속한다(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멘티는 활동 기관에 소속된 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으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표2 참조>.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을 소개하면, ①교육부는 다문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②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연간 예산을 대학에 교부, 사업 운영(시스템 관리, 홍보 등)을 수행한다. ③교육청은 초중고에 해당

사업 및 멘티 모집 및 선발 등을 안내한다. ④대학은 멘토를 선발하고 활동 기관에 멘토를 배정하며 활동한 멘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멘토링 활동을 관리한다. ⑤활동 기관은 멘티를 모집하고 멘티 정보를 등록하며 멘토링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주체별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 교육청, 재단, 대학, 활동 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2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참여대상

사업참여주체	내용
① 대학	국내 전체 대학 중 참여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
② 활동 기관	전국 초중고, 가족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시설, 국공립 유치원 등
③ 멘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의 재학생으로 지원 기본 요건을 갖춘 학생
④ 멘티	활동 기관 소속의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또한, ’24년부터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가족센터(약 230개소)가 멘토링 활동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지역 내 대학생들이 가족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변 대학과 연계하고, 보다 많은 다문화학생이 멘토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운영 절차

’24년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참여대학 모집(~12월), 멘토 모집(차년도 1~3월), 멘티 모집(차년도 1~3월), 멘토-멘티 매칭(3월-)을 통해 연간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다<표3 참조>.

표 3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운영 절차

① ~12월 교육부 →재단 사업계획 수립	② 11월~차년 1월 재단 → 대학 참여대학 모집
③ 1월~3월 대학 멘토 모집	④ 1월 ~3월 수요조사 등 멘티 모집
⑤ 3월~ 대학 멘토·멘티 매칭	⑥ 3월~차년 2월 멘토 및 활동 기관 멘토링 진행 출근부 및 승인
⑦ 3월~ 차년 2월 대학 → 멘토 출근부 승인 및 장학금 지급(매월)	⑧ 차년 2월 대학 → 재단 대학별 운영결과 보고
※ 상기 일정은 대학별로 상이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운영현황

매년 다문화 초중고 재학생 수는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매우 소수(약 1.6%)의 다문화학생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표4 참조>.

표 4 - 다문화학생 수 대비 멘티 수

구 분	2020	2021	202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신청멘티인원	3,042	3,816	3,67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티인원(X)	2,436	3,130	2,671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 재학생 수(Y)	147,378	160,058	168,645
재학생수 대비 멘토링 참여인원(X/Y)	1.7%	2.0%	1.6%

대학 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권역의 사업참여 대학은 ’21년 24개교에서 ’22년 20개교로 4개교(16.7%) 감소하였으며, 멘토 수는 ’21년 510명에서 ’22년 358명으로 152명(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 5 - 지역별 멘토 참여현황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합계	75	2,430	72	2,041	△3	△389
서울·경기·인천	24	510	20	358	△4	△152
강원	5	77	4	43	△1	△34
광주·전남·전북	8	550	10	604	2	54
대전·세종·충북·충남	13	191	12	154	△1	△37
대구·경북	11	645	12	466	1	△179
부산·경남·울산	13	449	13	415	-	△34
제주	1	8	1	1	-	△7

멘티 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권역의 사업참여 기관은 ’21년 254개에서 ’22년 183개로 71개(28.0%) 감소하였으며, 멘티 수는 ’21년 775명에서 ’22년 606명으로 169명(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6 참조>.

표 6 - 지역별 멘티 참여현황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합계	1,066	3,130	930	2,671	△136	△459
서울·경기·인천	254	775	183	606	△71	△169
강원	27	80	15	54	△12	△26
광주·전남·전북	257	745	285	766	28	21
대전·세종·충북·충남	67	202	52	166	△15	△36
대구·경북	250	770	199	561	△51	△209
부산·경남·울산	205	549	195	515	△10	△34
제주	6	9	1	3	△5	△6

반면, 광주·전남·전북권역의 경우 사업 참여대학, 멘토, 활동 기관, 멘티 수가 모두 증가하여 서울·경기·인천권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멘토링 활동현황은 대학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활동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활동내용은 ①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을 하고, ②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을 한다. ③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기초 학습지원,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번역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 등이 가능하고, ④신청 대학에 한해 (하계/동계) 놓여준 특별활동이 가능하며 재단은 특별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대학에 지원한다.

’24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확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의 확정으로 ’24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사업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예산: (23년) 67.5억 원 → (24년) 156억 원, 지원 인원: (23년) 4,000명 → (24년) 8,000명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다문화, 탈북, 중도입국 학생 등)에게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사업 참여 대학 확대 ②참여 멘토 확대 ③활동 기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대학생 멘토와 초중고 멘티가 안정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및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 적응과 성장 돕는다

교육 또는 장학금 지급의 목표가 단순히 학생에게 금전적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고 자기의 소망에 따라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의 말을 생각하면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이야말로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이주배경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주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사업의 확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계신 교육부와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 선생님들, 사업참여 대학 담당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㉔

참고자료

- 2023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업무처리기준
- 202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운영결과보고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안내자료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410(2023.10.6.)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안내’
-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이해와 실제(2014년 도서출판 학지사)

다(多)양한 문화(文化)를 담은 꽃(花)이 만개한 예술의 정원:

밀양영화고등학교 시나리오 수업과 연극·영화 예술 활동



해외영화제 출품이라는 반가운 소식

나는 2018년 밀양영화고등학교에 발령 후, 5년 동안 연극·영화 교사로 근무했다. 생활기록부 점검을 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교육부 파견 공문을 접하게 되었다. 교육 행정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희망하던 나는 교육부 기획조정실로 파견 오게 되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자 점점 밀양영화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다. 내 마음이 밀양영화고까지 전해졌을까? 문득 선배 선생님께 반가운 연락이 왔다.

“올해 만든 단편영화를 해외영화제에 출품하게

됐는데, 배경음으로 사용할 중국 음악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꽤 애를 먹었어요. 결국엔 중국저작권협회랑 노래를 제작한 음악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겼지 뭐예요? 선생님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학생 B가 찐! 하고 나타나서 직접 통화하고, 연락을 취해줘서 결국 해결됐어요. 진짜 B 없었으면 우리 해외영화제 출품은 꿈도 못 꿔을 거예요...”

B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배경학생이다. 나는 생활기록부 점검 도중,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떠서 처음으로 B가 이주배경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학기 초에는 B의 국적이 다르다는 것을 잘 눈치 채지 못했다. B의 담임 선생님은 B가 노래와 춤에 관심이 많았고, 연기를 희망하는 까닭에 밀양영화고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경남 최초 공립 기숙형 영화 예술 중점 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는 감성과 창의력을 갖춘 영상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 3월 1일 개교한 전국 유일 공립 기숙형 영화 중점 고등학교이다. 나는 5년 동안 학교에서 주로 영화 교과를 가르치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왔다. 독서를 사랑하고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학생, 카메라에 흥미가 있어 많은 영상을 촬영해 본 학생, 노래와 춤을 잘 취서 여러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 그런데 딱 5년 차가 되던 해,

우리 학교에도 B를 포함한 이주배경학생 두 명이 입학한 것이다. 두 학생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중학교 때 한국으로 넘어와 연기와 영화제작에 흥미가 생겼고 입시 설명회를 통해 밀양영화고등학교를 알게 된 것이다.

밀양영화고등학교는 경상남도 내 예술 심화 다양성 학교로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연극, 음악, 영화 등 다양한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예술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으로 입학한 두 학생은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했다. 1학년 과정에서는 기초 이론 및 기본 실습 과정을 체험하고, 2학년 때 연극/영화의 세부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두 학생은 각각 연극, 영화로 방향을 잡아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다. 1학년은 <영화의 이해>, <연극의 이해> 등 기초 이론 과목과 <시나리오>, <연기>, <영화 기술> 등의 기초 실습수업이 전공 구분 없이 이루어진다. 그중 <시나리오> 교과를 담당했던 나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조금 늦게 이주배경학생임을 알아차렸다. 고등학교 1학년 <시나리오> 수업은 시나리오 작법의 기본 구성 요소와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하는 기초 이론 과목이다. 나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수업을 재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놀이로 느끼고 경험을 나누는 글쓰기 수업

당시 <시나리오> 수업은 주당 3시간이었는데, 블록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갓 중학교를 졸업한 고1 학생들에게 매우 긴 시간이었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시나리오 작법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민 끝에,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가져왔다. 첫



1 영화제작 워크숍
2 2023 영화연극제 무대에 선 2학년 학생들의 'B사감과 러브레터' 연극 공연

번째 시나리오 수업 시간, 나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갔다. 캐리어 안에는 수첩, 모자, 일회용 세면도구, 아로마테라피 향수, 엔화가 들어있는 지갑 등 다양한 소도구들이 들어있었다. 5인 1모듬으로 친구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캐리어 속 물건들을 탐색해보고, 어떤 캐릭터일지 추측해보는 수업이었다. 활동지에는 이름, 나이, 성별, 사는 곳부터 시작해서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당시 유행하던 MBTI까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물건을 분배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모듬도 있었고, 하나의 물건에 이목이 집중되어 서로 토의하는 모듬도 있었다. 그중 이주배경학생이 있는 모듬은 새롭고 이색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국적을 바꾸어 낯선 타지에 첫 발걸음을 내딛던 학생의 경험은 매력적이고 새로운 캐릭터 창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발표 시간 내내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워 이주배경학생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였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 수업이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화 감상하기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고민이 생겼다. 이주배경학생들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편 영화를 감상할 때, 종종 영화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웃어야 하는 장면에서 어리둥절하거나,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영화에 대한 이해가 더뎠다. “선생님, 그런데 저 인물은 왜 그렇게 행동해요?”, “방금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주배경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당당하게 제안했다. “얘들아, 우리 영화 볼 때, 한국어 자막 보기 설정하면 안 돼?” 별안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방법을 왜 몰랐을까?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영화 속 인물의 대사는 매우 빠르거나 서브 텍스트(숨겨진 의미)가 내포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학급 학생들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그래!”, “좋아!”, “그러자!”라고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화 한 편을 즐겁게 감상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문득 이주배경학생들이 기뻐했다. 익숙한 모국어 자막이 아닌 낯선 한국어 자막을 통해 영화를 감상했기 때문이다. 이주배경학생이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곁에 있는 학급 친구들에게 의미를 묻고 알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렇게 한국어 교육은 의도치 않게 또 자연스럽게 시나리오 수업 안에 스며들었다.

이주배경학생들의 시나리오 수행평가

하지만 이주배경학생들은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이야기를 창작하고 종이에 써 내려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단



3 2023년 '시나리오' 공개수업

편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작성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국어사전도 필요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처음 치르게 되는 수행평가는 중학교와 달리 낯설고 어려웠다. 나는 고심 끝에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미리 ‘시나리오 기획서’를 받아 피드백을 통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피드백 종이를 받은 아이들은 삼삼오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친구의 조언을 귀담아 수정하기도 했다. 대망의 첫 수행평가. 이주배경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시나리오 용지에 펜을 꼭꼭 눌러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주배경학생 A는 ‘남의 소중한 것은 건들지 말자(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하지 말자).’를 주제로 액션 영화 한 편을 완성했다. 이주배경학생 B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 남매, 하지만 점점 멀어진다(새로운 환경에 처한 쌍둥이 남매가 각자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사이가 소원해진다).’를 주제로 가족 영화 한 편을 완성했다. 사소한 맞춤법 오류와 오타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경

험을 바탕으로 한 단편영화 시나리오는 진솔하고 정감 있었다.

단편영화 시나리오 발표하기

봉준호, 박찬욱 등 한국의 많은 영화감독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다. 학생들이 손수 작성한 시나리오를 사전 제작 발표하듯,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가 담긴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오랜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5분 이상 발표하는 시간이 처음이라 ‘혹시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내심 걱정됐다. 이주배경학생 A의 발표 시간, 때때로 단어를 잊거나 더듬기도 했지만, 특유의 재치 있는 표정과 행동으로 학급 전체를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주인공이 강아지를 밖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름 모를 누군가가 강아지를 납치한다는 이야기였다.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주인공이 강아지를 구출하는 과정’에 매료되어 귀를 쫓긋 세웠다. A는 가끔 아찔한 장면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면서도, 때로는 감동적인 장면을 섬세하게 발표하여 아이들의 눈물을 자아내었다. A의 발표는 느리고 종종 횡설수설했지만, A의 진심 어린 표정과 동작으로 한 편의 이야기가 온전히 전달됐다. 이주배경학생 B는 학기 초 고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남매가 각기 다른 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을 편안하게 발표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A는 아이들의 눈을 끌고 루 바라보면서 사소한 갈등과 오해로 엮인 쌍둥이 남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낯선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학급 아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공감의 장을 만들었다. 이주배경학생들과 함께여

서 더 의미 있고 이색적인 시나리오 수업이었다.

연극·영화 예술 활동 속에 꽃 피우는

다문화 교육

교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교감 선생님 자리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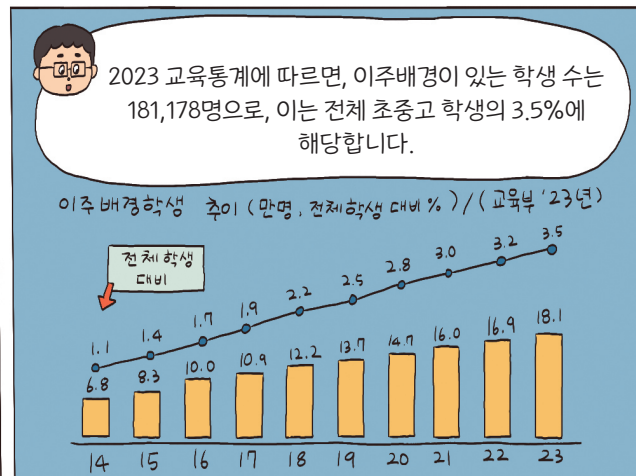
“아무도 주눅 들지 않고, 누구도 초라하지 않은 다정과 환대의 세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정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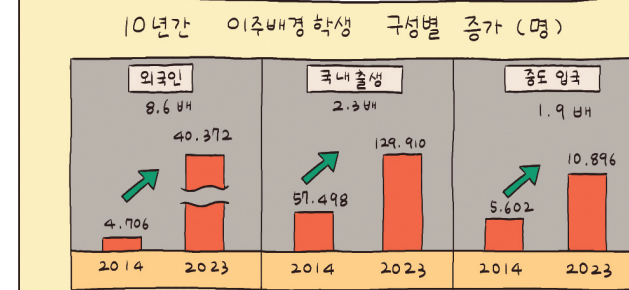
교감 선생님은 학교를 방문한 낯선 손님이 위 문구를 읽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설명하셨다. 정여울 작가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에 등장하는 ‘초대’와 ‘환대’는 다른 의미였다. ‘초대’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임에 참가해줄 것을 청하거나, 사람을 불러 극진히 대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환대’는 초대와 달리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는 것’이며, 낯선 이를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도덕적 공동체)으로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이었다.

이렇듯 밀양영화고등학교는 모두의 다름을 인정하며 반갑게 환대하는 예술학교이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된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연극·영화 활동을 체험한다. 이주배경학생들이 ‘전학생’을 소재로 연극을 제작하고 직접 연기하며 선보였을 때, ‘낯선 환경에 발을 딛고 적응하는 체험’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했던 ‘환대’의 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낯설지만 반가운 환대의 박수 속에서, 밀양영화고등학교의 다문화 교육은 예술로 스며들고 꽃 피운다. ⑦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운다!



1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그중 외국인 학생은 8.6배, 국내 출생 2.3배, 중도 입국은 1.9배 늘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어교육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교생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다문화 밀집학교도 지난 3년간 2배 증가했으며, 44%가 5군데의 시군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학급 수용률은 10.3%에 머무는 등 학교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 아래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다양성·포용성을 높이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정책추진의 중심점을 학교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재로 키워 정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식 전환	학교부담 경감	정주형 정책
취약·소외계층 → 공동체 일원	학교 단위 대응 → 지역 중심 지원	단순 적응 지원 → 우수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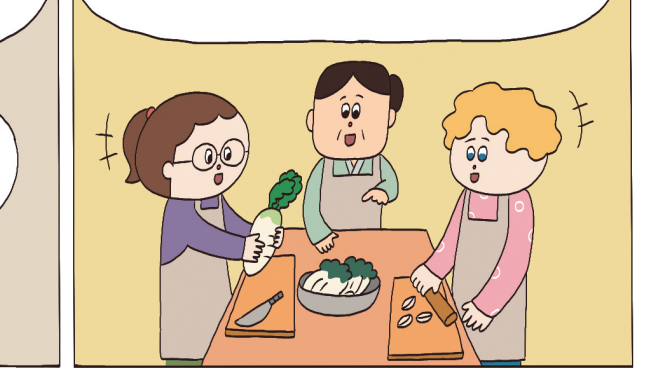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이뤄지던 한국어교육을 '한국어 예비과정'과 '학교 한국어학급'으로 이원화하며, 대학 연계 한국어 집중캠프를 실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학교 한국어학급 • 생활한국어 • 기초 학습한국어 • 학년별 교과중심 한국어	한국어 예비과정 • 생활한국어 • 기초 학습한국어 학교 한국어학급 • 학년별 교과중심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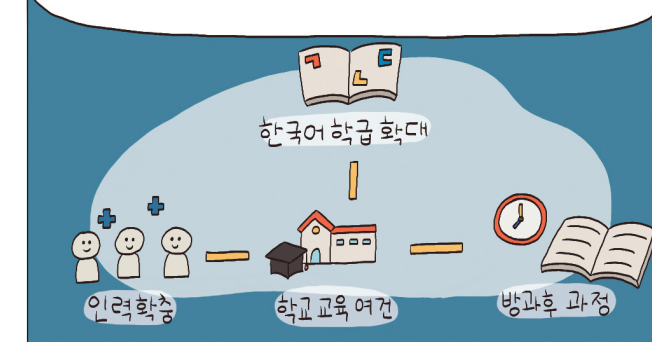
둘째,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살린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선발, 대학졸업시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신설하고, 다문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학교도 운영합니다.



다문화 특화 직업계고를 확대하고, 전문대학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멘토링 등 학생 스스로 자기 강점을 살린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다문화 밀집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급 확대, 지원인력 확충, 방과후과정 지원 등 이들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합니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



인공지능 한국어 논·서술형 자동채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이 쓴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AI 자동채점이 구현하는 '맞춤교육'

현재 교육부는 2025년까지 AI 디지털 교과서와 코스웨어를 학교에 도입함으로써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HTHT), 즉 인간 교사가 AI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긍정적 학습 경험과 잠재력을 이끌어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인간 교사가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학교에서도 학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듯 이제는 AI를 교육에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과거 일률적·평균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 교육은 이제 다양화·개별화를 지향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학생의 사전 지식이나 선개념 등을 확인하여 학습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중요하다. 평가가 선택형이나 단답형 문항으로만 이루어지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도 학생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서술형 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논·서술형 평가는 그 특성상 인간 교사가 즉각적으로 채점하고 피드백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학생이 작성한 논·서술형 응답을 직접 채점하거나, 초벌 채점이나 답안 분석을 통해서 인간 교사의 채점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작성한 논·서술형 응답을 분석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수정하도록 하거나, 글을 고쳐쓰기 위한 첨삭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AI 자동채점 연구 현황과 AI 기술의 '설명 가능성'

영어권 자동채점 기술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한국어 자동채점 기술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노은희 외(2012, 2013, 2014, 2015, 2016)의 연구를 중심으로 단답형과 1문장 수준 서술형 자동채점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종임 외(2022, 2023 수행 중)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과 글쓰기 및 수학과 서술형 자동채점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동채점은 글에 드러나는 키워드나 수량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평가 요소만을 채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글쓰기 채점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성이나 창의성을 채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한 편의 글을 채점하고 피드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AI 기술이 통합 적용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채점과 피드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딥러닝 계열의 AI 기술들에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 중인 글쓰기 자동채점 연구는 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AI 기술의 '설명 가능성(Explainable)' 문제 때문이다. 이제 AI 기술은 많은 업무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에서는 AI와 관련한 규제를 점차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이나 학생평가 목적의 AI 시스템을 고위험 AI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경우 'AI 시스템을 인간이 직접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 'AI의 예측과 판단에 대한 근거를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AI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신뢰성, 사용한 알고리즘이나 채점자질(Scoring Feature)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AI 자동채점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채점자질을 설계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채점자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있다. 글쓰기 자동채점을 예로 들면, 채점자질은 글의 점수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글의 중요한 특징들을 의미한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특징을 인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하고, 딥러닝은 수많은 데이터에서 기계가 필요한 채점자질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채점자질 설계의 주체에 따라서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에 차이가 생긴다. 즉, AI 자동채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채점자질을

인간이 직접 설계하는 머신러닝의 경우, 적어도 어떤 자질이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자질들이 점수 예측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의 설명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딥러닝은 채점자질을 기계가 자동으로 선정하고 채점 과정에서 블랙박스과 같은 은닉층(Hidden Layer)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채점자질이 점수 예측에 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때문에 자동채점 결과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피드백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AI 자동채점을 통한 채점 결과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머신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을 우선 적용하는 관점에서 한국어 자동채점 방법을 설계하였고, 올해 연구에서는 소규모이긴 하나, 국어과 글쓰기와 수학과 서술형 답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AI 자동채점 및 피드백이 가져올 교실의 변화

현재 연구 중인 한국어 자동채점은 충분한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채점모델이 정교화된 이후에는 대단위 평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및 교사의 채점 지원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고부담 평가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교수-학습 및 채점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자동채점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실 현장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시행하거나, 학생들의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교사가 글을 채점하고 피드백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자동채점 및 피드백은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이 쓴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도 채점과 피드백에 들이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자동채점으로 생성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보다 심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

물론 현행의 자동채점이 단어 수, 문장 수, 형태소별 사용 빈도, 문장 복잡도, 이독성, 어휘 사용 수준 등 글의 계량적 정보에만 치중해 있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나, 이러한 계량



교사 입장에서도 채점과 피드백에 들이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자동채점으로 생성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보다
심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

적 정보는 기계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고, 계량적 정보 중심의 피드백을 AI가 먼저 제공해 주면 인간 교사는 AI가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 중심의 피드백에 집중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자동채점 및 피드백 기술이 개발되면 교실 현장에서 글쓰기 학습이나 논·서술형 문항을 활용한 평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AI 한국어 논·서술형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한국어 논·서술형 자동채점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채점자질을 설계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요구하는 분야는 바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다. 자동채점 시스템은 기계가 처음부터 스스로 채점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람이 채점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계가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반영하여 채점모델을 만든 다음, 이에 근거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점수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자동채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알고리즘 구축 시 학습할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모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AI 학습용 데이터는 자동채점의 시작점이 되므로 매우 정교하고 타당한 과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자동채점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논·서술형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셋은 그 활용도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유관 부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논·서술형 데이터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된다면, 한국어 자동채점 및 피드백 기술이 우리의 교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환경 동아리 155팀 만들어져…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 1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 프로젝트는 영산강의 생태환경을 탐구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는 학생주도형 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이다.

올해 한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과 학생 중심의 탐구·실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민, 교육지원청·학교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실천 선포식’을 갖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관내 초중고 125교·155팀·1,400명 참여 내 고장 생태환경탐사 및 보호활동 펼쳐

‘영·산·강 프로젝트’는 학생주도형 프로그램이 핵심이지만 이외에도 17개 교육지원청의 릴레이탐사 프로그램, 교사연수, 성과보고회 등으로 구성하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한 관내 초중고 125개교, 155팀에 각 200만 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했다.

지도교사를 포함해 5명 이상의 동아리 인원을 구성해 진행하는 학생주도형 프로젝트를 위해 목포, 여수, 순천, 담양, 고흥, 함평, 화순 등 22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81팀, 중학교 33팀, 고등학교 41팀 등 총 155개의 환경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이들 1,400여 명의 학생들이 주도하여 영산강을 포함해 내 고장의 강, 바다, 숲, 갯벌, 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생태탐사 및 생태보호 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영산강문화관, 물사랑배움터, 남도에코센터,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등 10여 개 지역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영산강 생태탐방’, ‘하천 생태계 어류조사’, ‘함평 고막원천 수질조사’, ‘하천생태 식물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산·강 프로젝트’는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관내 2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은 영산강 디지털 생태탐사지도 활용 방법, 동천과 함께한



1 강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탐진강 탐사
2 지난 10월 14일 열린 ‘탐진강 물길 걷기’와 ‘2023 탐진강 보전·탐사 프로젝트 성과 다짐 선포식’에 참여한 학생 자율동아리 홍보 부스



생태시민 프로젝트 지도안 제시, 특강 ‘자연과 나를 만나게 하는 힘’, 현장탐사 등 생태환경교육 지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관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중 장흥교육지원청에서는 탐진강 생태보존 동아리 운영과 환경보전 탐사영상 제작을, 해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해남천 탐사와 플로깅(쓰레기를 주우며 하는 조깅) 운영, 장성교육지원청에서는 황룡강 보존을 위한 생태탐사 활동을, 진도교육청에서는 해양생태 체험과 바다 살리기 행동 실천을 추진하는 등 각 지역의 생태환경과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릴레이 탐사를 진행한 점도 돋보인다. 지역교육청의 규모에 따라 참여 인원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2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만큼 연간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 박진영 장학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교사·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의 물줄기를 알아보고, 주변 생태환경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전남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아가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프로젝트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영산강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 성찰

초등학교 참여 활발… 다채로운 활동 눈길

‘영·산·강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의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관내 초등학교 중 68개교, 동아리 81팀, 학생 893명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전체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이다. 이에 대해 박 장학사는 “초등학교에선 다양한 교과에서 환경교육을 융합해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군외초등학교 이철우 교사는 “동아리 지도교사로 참여

영산강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내 고장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했는데 동아리 활동 내용을 영산강 디지털 생태탐사지도 사이트에 올리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 외에도 다른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배우게 된 점이 좋았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생태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최우수동아리에 선정된 비금동초등학교 ‘비금에코리서치’ 동아리 학생들은 “생태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환경보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완도금일고등학교 조대현 교사는 “완도금일고는 섬에 있는 전교생 32명의 소규모 학교다. 금일도는 올해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곳으로 2일 급수 4일 단수의 제한급수 대책을 감수해야 했다.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했고, 생명의 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했다.”라고 말하면서 8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에코 그린(ECHO GREEN)’ 동아리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에코 그린’ 동아리 학생들은 내 고장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인근 저수지와 식수원 탐방과 조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해안가 플로깅 등의 활동을 펼쳤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 4 10월 11일 담양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담양 영·산·강 기후환경사진전’ 개막식에서 학생들이 소감을 나누고 있다.
- 5 담양 대나무축제에서 관내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버려지는 양말뭉치를 재활용해서 컵받침 등의 생활소품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 6 완도금일고등학교 해안가 플로깅 활동



우수동아리 38팀 선정 2024년엔 참여 학교 300교로 확대

전라남도교육청은 프로젝트를 갈무리하며 참여했던 155팀 중 초등학교 20팀, 중학교 9팀, 고등학교 9팀 총 38팀을 우수동아리로 선정하고 우수동아리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8일 보성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영·산·강 프로젝트’ 동아리 성과발표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담양교육지원청 박서연 장학사는 “담양에 기반한 시스템적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산강 350리의 시원인 가마골 용소 계곡을 탐방하고 촬영하여 <기후환경사진전>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했다. 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을 환경활동가로 가정하고 학교 주변과 영산강 탐사활동을 통해 식물의 다양성과 기후위기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영산강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내 고장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영·산·강 프로젝트’가 환경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2024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초중고 300팀에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교사의 생태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 탑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Interview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기후위기 극복할 힘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있다!”

Q ‘영·산·강 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중심의 새로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 스스로 주도하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영산강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강으로 지리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생태환경 보호·실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게 됐다.

Q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효과는?
학생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작지만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이 쌓여서 생태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환경보호 실천 문화가 확산·정착하길 바란다.

Q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체감하신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는 생태환경 동아리의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이야기했다. 환경·에너지·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거나, 생활 태도가 변했다는 등 학교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이 의미 있는 것 같다. 교육과정 운영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태환경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멘토가 되어주고, 체험학습 현장에서 성심껏 지도해주신 교사와 참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올해 첫 번째로 실시된 프로젝트 사업으로 홍보 부족과 영산강이라는 지리적 한계 인식으로 더 많은 학교의 관심과 참여를 못 끌어낸 부분이 아쉽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의 활동 모습이 담긴 보고서와 전시 작품을 둘러보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힘이 바로 학생들에게 있음을 다시금 느낀다. 내년에도 진행될 ‘영·산·강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의 공생의 가치를 펼쳐나가는 생태시민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

SK플라즈마 민경석 매니저

세계 곳곳에 ‘삶의 희망’을 심다

BIO Globa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는 한마디로 ‘세계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이 닿지 않는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의약품으로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이달에는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의 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SK 플라즈마는 국내에 두 곳 밖에 없는 혈액제제 바이오 의약품 개발사 중 한 곳이다. 바이오 의약품이란 원래 ‘자연에 있던 것을 자르거나, 필요한 성분만 뽑아내거나, 정제해서 인체에 필요한 성분만 투여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혈액제제(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모든 치료용 물질)도 그중 하나다.

민경석 매니저는 SK플라즈마에서 글로벌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바이오의약품 및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업무다. 최근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위한 바이오 의약품 솔루션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해 수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로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의 기술’이라는 민경석 매니저는 “협상의 기술이야말

로 일종의 종합예술 같다.”라고 소개한다. 파트너와 마주 앉은 협상에서는 말하는 포인트,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통한 상황 분석, 파고드는 시점과 논리 등의 협상 기술이 특히 중요하단다. 바이오 보건산업에 몸담으면서 “인류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늘 생각한다.”라는 민경석 매니저다. 다음은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민경석 매니저와 나눈 일문일답.

하나,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나?

바이오의약품 사업개발 업무를 한 줄로 표현하면, ‘회사가 보유한 역량으로 매출을 만들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상하는 일’이다. 이 사업개발 업무를 역할별로 분류하면 크게 라이선싱 업무(In +



이제 한국은 생산 기술과 연구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한 바 있다. 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추가적인 입찰은 없었지만, 전쟁에서 우리 의약품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이후부터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몽골에 질병 진단 제품을 수출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현지 실험실의 오염으로 마트에서 직접 표백제를 사서 손수 청소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거래였다. 또 독일의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는 퀴즈쇼를 진행하고, 상품 당첨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부스 홍보를 위해 애썼던 기억이 있다.

넷, 바이오 글로벌사업을 진행하면서 얻는 보람, 그리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바이오 보건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원가와 배송 경쟁력을 크게 개선하여 의약품이 닿지 않는 곳에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약품

Out), 위탁생산, 기술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라이선싱(Licensing)이란, 우리가 가진 라이선스(면허)를 회사 외 파트너와 제휴를 체결해서 판매 권한을 분배하는 업무다. 쉬운 말로 완제품 수출을 위한 업무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는 각 국가에서 어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전체 국민 중에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지 등등을 먼저 파악한다. 위탁생산이란 제조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술을 판매하는 업무다. 이러한 과정을 조율하며, 매출과 이익을 분석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가 담당한다.

둘,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바이오 보건산업의 밝은 미래를 내

다보며 선택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사업 부문을 선택한 계기는 세상은 넓으니까, 그 무대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여기에 개인적인 사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만 여덟 살 때, 어머니께서 뇌수막염으로 돌아가셨다. 이 일이 성인이 된 후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역할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체계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진 기업에서 인류가 건강한 모습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면서 보건산업 분야에 일하기로 했다.

셋, 지금까지 진행해 온 주요 글로벌사업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우리 의약품을

이라는 삶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 반면 협상을 하다 보면, 문화 차이에 따른 애로를 느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마치고 협상하는 게 정확도와 효율을 위해 중요시된다면, 중남미나 인도 등에서는 데이터를 주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해서 협상하려 하는 식이다. 이때 중남미 파트너라면 축구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업무 절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로서 특별히 갖추어야 할 직업적 역량이 있다면?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꾸려나가면서 다양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정치와 법을 알면 유용하다. 둘째, 사회에 대한 지식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하락은 제약회사와 현지 병원의 이익에도 영향을 주지만, 건강보험체계가 어떻게 갖춰졌는지에 따라 환자의 의약품 구매력과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역사에 대한 지식이다.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파트너사 혹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경제와 재무에 대한 지식이다. 언제 선적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원화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환율 예측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외국어다. 영어는 잘할수록 좋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면, 제2외국어로는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추천한다. 이 중에서도 1순위로는 아랍어를 공부할 것을 권하고 싶다.

여섯,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의 미래 전망은?

바이오 보건산업의 성장률은 매년 5~8%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성장률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주요 대기업인 삼성, 롯데, 그리고 구글에서도 바이오 보건

사업을 시작하여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다. 게다가 복제약을 주로 한국 시장에 판매하던 지난 전통제약사의 사업 방식과 달리, 이제 한국은 생산 기술과 연구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가 수요 대비 부족한 편이다.

일곱, 바이오 글로벌사업개발을 담당하는 매니저로서의 목표는?

바이오 보건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자료(2022년) 기준 수출 규모 면에서 선박과 무선통신기기에 이어 11위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량에서 약 2.4%의 비중이다. 앞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 ㉠

TIP BOX

바이오 글로벌사업 매니저를 꿈꾼다면...

글로벌사업을 담당하는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당연히 외국어 능력이다. 이 업무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유학 경험자들이다. 하지만 굳이 해외 유학을 가지 못하는 환경이거나,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글로벌사업개발 매니저를 구인하는 기업 중에서는 유학파 출신도 있고, 또 국내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곳도 있다. 충분한 어학 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다. 글로벌사업개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외국 파트너와 소통하는 양보다 국내의 협업자와 대화하는 양이 훨씬 많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우선 내부적으로 다양한 부서와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외국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어를 잘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강원 강릉 선교장 할래정 설경

조선 후기 사대부 가옥

선교장의 겨울 정취

300년 전 효령대군 11대손 이내번이 경포호숫가에 '선교장'이라는 저택을 지었다. 만석꾼이었던 이내번과 자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덕에 선교장이 품격 있는 강릉 대표 고택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겨울에는 한옥과 뒷산 솔숲이 어우러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강릉에 눈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픈 곳이다.

강릉 최고 부잣집이었던 선교장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던가. 세종대왕 둘째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1703~1781)을 두고 한 말 같다. 이내번이 불현듯 나타난 족제비들을 따라갔다가 명당을 발견하고 그 터에 선교장(船橋莊:중요민속자료)을 지었더니, 대대로 집안이 번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강릉에서 한양까지 갈 때 선교장 땅만 밟고 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생길 만큼 선교장의 재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지금도 본채만 100여 칸이

넘고, 부속건물까지 합하면 280여 칸에 달한다.

선교장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경포호수가 지금보다 세 배쯤 넓었다. 아마도 선교장 바로 앞까지 경포호수 물이 찰랑댔던 모양이다. 경포호수를 가로질러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녔다 하여 ‘선교장’이라 이름 붙었다. 뒷산에는 수령 300~600년 된 금강송이 선교장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솔숲 오솔길에서 바라본 선교장 설경이 담백한 수묵화 같다. 99칸 저택이 눈 이불을 덮고 겨울잠을 자는 듯 사방이 고요하다.

- 1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선교장의 유물전시관 내부
- 2 손님들에게 무료 숙식으로 제공됐던 선교장의 줄행랑
- 3 눈 오는 날 선교장 뒷산 금강송숲에서 바라본 풍경



여느 사대부 가옥과 다른 선교장의 건축 특징

선교장은 건물 구조가 여느 사대부 집들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선교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인공호숫가에 세워진 활래정이다. 조선 후기 선비들이 운치에 반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 그곳이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추사 김정희, 규원 정병조, 해강 김규진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서화가들이 활래정을 거쳐 갔다. 이들이 남긴 편액이 활래정 곳곳에 걸려 있다.

활래정을 지나야 위풍당당한 모습을 한 솟을대문이 나온다. 대문 위에 ‘선교유거(仙嶠幽居)’라고 적힌 현판이 달려 있다. ‘신선이 거처하는 그윽한 집’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서예가 이희수가 썼다. 현판 왼쪽 아래에 그의 호 ‘소남’이 작게 적혀 있다.

솟을대문 안에는 안채, 사랑채, 중사랑, 별당, 연지당, 행랑채, 사당 등이 열두 대문을 사이에 두고 길게 연결돼 있다. 건물이 많아 궁궐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 동별당, 외별당, 열화당 등 별당도 세 개나 된다. 1815년에 지어진 열화당은 선교장 주인이 거처하는 큰 사랑채였다. 선교장의 중심을 잡는 건물이었을까. 왼쪽 처마 아래의 서양식 차양 장식이 눈길을 끈다. 이 차양은 구한 말 러시아 공사가 선교장 주인의 극진한 대접에 보답하기 위해 선물한 것인데, 이국적인 정취를 풍긴다.

줄행랑의 유래

열화당 맞은편에 늘어선 23칸의 행랑채는 열차 객차를 보는 것 같다. 행랑채가 줄을 선 듯한 모습이어서 ‘줄행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선교장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은 줄행랑이 ‘도망’을 뜻하는 말로 와전됐으나, 원래는 줄지어 늘어선 행랑 또는 부자의 의미로 쓰



였다. 이 줄행랑에 관동팔경과 경포대를 유람하는 선비들이 묵었다.

만석꾼이었던 선교장 주인들은 흥년에는 공간을 열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 주고, 방문객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손님용 밥상 소반만 300개가 넘었다. 머물다 떠나는 이에겐 옷을 한 벌씩 지어주었다. 손님을 위해 옷만드는 침모, 서화를 표구하는 장인, 환자를 돌보는 의원이 상주했다고 하니 강릉 인심이 좋더라 말이 선교장에서 비롯됐을 만하다. 선교장에서 환대받았던 명사들은 떠날 때 글이나 그림으로 보답했다.

선교장이 여러 국난을 거치면서도 무탈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 국가 지정 ‘명품 고택’이 된 것, 족제비들이 집터를 점지해 준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닌 듯싶다.

99칸 고택에서의 하룻밤

지금도 선교장에서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 옛날에

는 선교장 주인이 손님과 담소를 나눠보고, 인품과 학식을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각각 열화당, 중사랑, 행랑채에 거처하도록 했다고 한다. 현대에 태어나 품격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선교장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면 보름달이 뜨는 날을 추천한다. 뽕얀 달빛이 활래정을 비추는 풍광이 매우 운치 있을 테니. 선교장에 머물면서 상설 진행되는 다식과 배다리 만들기, 한복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선교장의 곡식 창고를 고쳐 지은 생활유물전시관과 유품전시관에서는 10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서화, 고서, 전통 가구, 생활용품 등의 유물 800점을 관람할 수 있다. ①

선교장 정보

- 주소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
- 관람 시간 09:00~18:00
- 관람료 어른 5,000원/청소년 3,000원/어린이 2,000원
- 문의 033-648-5303
- 해설 시간 09:00~16:00(12:00~13:00 휴식) 매시 정시에 진행

북유럽 문학,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다

북유럽 문학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바베트의 만찬〉을
추천하고 싶다.

올해 노벨문학상이 노르웨이의 극작가 욘 포세에게 돌아가면서 북유럽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흔히 북유럽 문학 혹은 스칸디나비아 문학이라고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나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같은 대중적인 작품들도 많다.

영화로 많이 알려진 <바베트의 만찬>이나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각각 덴마크 작가 카렌 블릭센의 작품이다. 아동문학으로 확장하면 북유럽 문학의 영향은 더욱 확실히 느껴질 것이다. 바로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한 수많은 동화를 지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안데르센이 덴마크 작가이고, <뽀빠이 룽스타킹> 시리즈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또한 스웨덴 작가이다. 영화 <토르> 시리즈로 잘 알려진 북유럽 신화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20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욘 포세는 희곡의 전통이 매우 강한 노르웨이 출신 작가다. 극작가로서는 13번째 수상이며, 헨릭 입센 이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연극을 무대에 올린 작가이기도 하다. ‘21세기 사뮈엘 베케트’로도 알려진 욘 포세는 시적인 울림이 가득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아침 그리고 저녁>, <멜랑콜리아>를 비롯해 수많은 작품을 썼다. 욘 포세는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살며 바다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썼으며,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소설, 희곡, 아동문학 등을 창작했다. 한국어로도 일찍이 번역된 <아침 그리고 저녁>은 마치 죽음과 삶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 있는 듯한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받았다.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지만 만약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마중 나온다면 어떨까.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가 주인공의 죽음의 순간 저세상에서 마중을 나와

‘저 세계로 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은 어쩌면 처음부터 아름답고 눈부신 하나의 길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평화로운 상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북유럽 문학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 바로 입센의 <인형의 집>이다. 걷는 길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화가이자 작가 나 헤석이 자신 또한 아버지의 인형으로, 남편의 인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조선의 여성들 모두가 더 이상 타인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말고 온전한 주체적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글은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메시지로 주목받았다. 지금 북유럽은 성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대륙이지만, <인형의 집>이 나왔을 당시에는 ‘과연 집을 떠난 노라가 제대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보장받기 어려웠다. 해방된 개인, 주체적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카롭게 질문하게 만드는 작품 <인형의 집>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연극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북유럽 문학 작품들

<바베트의 만찬>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북유럽에서 검소하다 못해 너무나 금욕적으로 살아온 두 자매에게 어느 날 프랑스 왕실 요리사였던 바베트가 찾아온다. 정치적인 이유로 도피하고 있었던 바베트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고, 그 당첨된 금액을 ‘하룻저녁의 만찬’을 위해 아낌없이 다 써버림으로써 이 마을에는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우아하고 풍요

로운 만찬을 요리하여 대접하자 잃어버린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옛 연인들, 지금까지 숨겨왔던 엄청난 진실을 고백하는 커플, 음식의 맛 그 자체로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로 인해 ‘바베트의 만찬’은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저녁이 된다.

북유럽 문학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바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다. 스웨덴의 한 소읍 양로원에서 백 살 생일 파티를 앞둔 알란은 창문을 넘어 화단으로 뛰어내린다. 그는 ‘이제 그만 죽어야지’라고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대신, 이제부터 덩으로 남은 인생을 맘껏 즐기기로 한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도망친 곳은 버스터미널이었는데, 그곳에서 알란은 한 무례한 청년의 트렁크를 충동적으로 훔치고, 그 안에 돈다발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온갖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시작된다. 노인은 그야말로 돈다발을 들고 무작정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곁으로는 ‘도망치는 구조’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삶’과 진정으로 마주치게 되는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이 소설의 백미다.

북유럽 문학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바베트의 만찬>을 추천하고 싶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눈치 보고, 후회하느라 써버린 모든 시간이 아까워졌다. 바베트의 만찬처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한순간을, 인생의 딱 한순간이 아니라 더 자주, 가능하면 하다면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싶어졌다. 바베트처럼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일어나지 않아도, 바베트처럼 최고급 요리를 만들 줄 아는 기술이 내게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재능과 힘을 수많은 사람과 나누는 풍요롭고 알찬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졌다. ②

자꾸 하고 싶은 매력적인 평가 책 읽고 구술평가 하기

교사가 어떤 평가를 마치고 나서 다시 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지식을 묻는 지필평가를 하고 나면 이 평가가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켰는지 의심스럽다. 의미 있는 수행평가를 해 보기도 하지만 채점과 기록에 많은 시간이 든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풍부하면서도 교사가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어디 없나 고민할 때 구술평가를 만났다.

구술평가는 말로 하는 수행평가이다.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는 다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나 평가자와 학생이 1:1로 하는 면접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모둠 구술평가는 학생 사이의 소통성을 높일 수 있어 좋다. 지식을 묻는 평가를 구술평가로 할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하는 구술평가는 문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어서 좋다. 구술평가의 대상 도서로 국어과에서는 소설, 시집, 사회문제를 다룬 책, 진로 관련 책, 인물 이야기를 담은 책, 그 외의 일반적인 인문·사회 분야의 책 등을 활용한다. 교과마다 자기 교과와 어울리는 책을 찾아 목록을 구성하면 좋다. 모든 교과에서 해당 교과의 특성을 살린 책을 선정하여 독서 구술평가를 할 수 있다.

표1 - '삶의 태도를 배우는 책 읽기' 목록

양심을 지킨 사람들 김형민_다른	개똥 세계 강수돌 외_북멘토	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 윤태호 외_시사IN북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홍세화 외_철수와영희
세상을 바꾸는 힘 조영선 외_공리	송승훈 선생의 꿈꾸는 국어 수업 송승훈_양철북	깨끗한 존경 이슬아_헤엄	행복한 고집쟁이들 박종인_나무생각
가만 한 당신 최윤필_마음산책	타인은 놀이공원이다 지승호_싱긋	자존가들 김지수_어떤책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김지수_어떤책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 이진순_문학동네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신영복 외_창비교육	진심의 탐닉 김혜리_씨네21북스	사생활의 천재들 정혜윤_봄이필

삶의 태도를 배우는 책 읽기와 독서 구술평가

학생들이 배울만한 인물 이야기를 담은 책 목록을 만들고 구술평가를 했다. 수업은 크게 네 단계로, 책 고르기와 책 읽기, 구술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하기이다.

표2 - 독서 구술평가 4단계

단계	개요	차시	내용
1	책 고르기	1	'삶의 태도를 배우는 책 읽기' 목록에서 책 한 권 고르기
2	책 읽기	2-4	책 읽고 인상적인 인물 소개하기
3	구술평가 준비하기	5-6	구술평가 연습 및 상호 피드백
4	구술평가 치르기	7-9	모둠별 구술평가

교사는 일련번호가 매겨진 열 개의 구술평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중 두 개의 문제에 대해 답한다. 이때 학생은 아무런 원고나 메모를 보지 않는다. 원고가 있으면 내용을 보고 줄줄 읽게 되어 구술평가의 취지가 살지 않는다. 모둠원 네 명의 학생들이 서로를 보며 답변하고 교사를 바라보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교사는 학생들끼리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술평가는 모둠별 평가 순서를 먼저 정해 두고, 학생이 각자 평가 문제를 고른 뒤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며 진행된다.

구체적인 평가의 장면은 어떨까? 교실에 학생들이 네 명씩 모둠별로 앉아 있다. 평가 순서는 모둠 대표가 나와서 어느 모둠부터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모둠부터 1순위로 평가한다.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져서 첫 번째로 하는 것보다 모둠 대표가 느끼는

부담감이 적어서 좋다.

평가 순서를 정했으면 교사는 평가할 모둠 옆에 가서 선다. 평가 모둠의 책상 위에는 구술평가 문제가 적힌 종이만 한 장 놓여있다. 평가 차례가 아닌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다. 교과서 학습활동 풀기나 간단한 글쓰기 등 필요에 따라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구술평가 문제는 미리 제시되므로 학생들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구술평가 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준비해 둔다. 하지만 평가 현장에서는 열 개의 문제 중 두 문제를 무작위로 골라 답변한다. 답변할 두 문제는 스톱워치를 활용하여 뽑으면 간편하다. 교사가 스마트폰의 스톱워치를 켜서 구술평가를 할 모둠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 문제를 뽑게 한다. 교사가 스톱워치를 실행하고 학생에게 넘겨주면, 학생이 스톱워치의 버튼을 눌러서 그때 나온 숫자로 답변할 문제를 정한다. 38이 나오면, 3번과 8번 문제에 대답하고, 10이 나오면, 1번과 10번 문제에 대답한다. 00이나 22와 같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다시 뽑는다.

스톱워치로 고른 두 가지 문제로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학생의 소통 능력을 더 향상하고자 하면 3차 답변까지 들으면 좋다. 모둠에서 협력해서 질문을

인물 이야기가 담긴 책의 구술평가 질문

- ① 책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삶의 태도를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 ②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말해보시오
- ③ 책 속에서 자기와 가장 닮은 인물을 찾고, 왜 자신과 비슷한지 설명하시오
- ④ 책 속에서 자기와 가장 다른 인물을 찾고,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 ⑤ 책의 한 인물을 골라 그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 ⑥ 책의 한 인물을 골라 그 인물에게 인생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해보시오
- ⑦ 책의 한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그 인물이 어떻게 답변할지 상상해서 대답하시오
- ⑧ 책에 나오는 인물 둘 이상을 언급하며 그들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설명하시오
- ⑨ 책을 읽기 전과 읽은 뒤에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거나 확고해졌는지 설명하시오
- ⑩ 책 제목의 의미를 추측해 설명하고, 자신이 새롭게 책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지 말해보시오

만들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하거나, 서로 즉석에서 책과 관련된 질문을 주고받도록 하여 학생끼리 상호 작용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독서 구술평가가 좋은 이유

독서 구술평가는 평가 도구로서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기억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구술평가 문제의 답변을 구성하기 위해 책을 꼼꼼하게 읽는다. 또한 원고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지식을 구성하게 되고 그 지식을 말하기로 준비하면서 지식을 재구성하여 기억하는 방법을 익힌다.

둘째, 타인과 책의 의미를 나누며 소통하는 방

법을 공부할 수 있다. 구술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친구들, 교사와 소통한다. 혼자서는 의미를 구성하기가 어렵지만 함께 의견을 나누면 책의 의미가 풍성해진다. 또한 구술평가 연습을 모둠별로 하면서 서로의 말하기를 듣고 피드백하는 동안 어떻게 나의 말을 잘 전달할지 고민할 수 있다. 타인과 책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고급스러운 소통 방법을 배우기에 의미가 있다.

셋째, 수업 이외 시간에 교사의 채점 부담이 적어 교사가 평가 이후 학생 기록에 더 시간을 낼 수 있다.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사들이 수행평가 채점에 진을 빼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분량이 많은 글쓰기 평가를 할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구술평가는 교사가 해당 수업 시간에 채점을 끝낼 수 있어 가뿐하다. 물론 구술평가를 하는 동안은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교사의 채점 부담이 덜하면 교사가 평가 후 학생의 성취를 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록하는 데 더 정성을 쏟을 수 있다.

넷째,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쉬워 변별력이 높은 평가 도구이다. 수행평가는 적당히 참여만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관습적인 인식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를 성취에 따라 채점하지 않으면 결국 지필평가의 점수로 성적 변별이 되어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소홀하게 되고 오히려 참여 동기가 떨어지기도 한다. 학습 태도를 평가의 주요 요소로 삼는 수행평가도 있지만, 학습 결과를 성취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수행평가도 필요하다. 구술평가는 학생의 성취 정도를 알기에 알맞다. 말하기는 글쓰기와 달리 빠른 시간 내에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그렇다.

더불어 구술평가는 참여율이 높고 평가를 포기

하는 학생이 적다. 서로 얼굴을 보며 하는 평가이기에 학생은 교사와 또래 친구 등 타인을 의식하기도 하고, 모둠에서 서로 도우며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에 낙오되는 학생이 적어 교육적이다.

독서 구술평가의 채점 요령

글쓰기와 말하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글쓰기에는 고쳐쓰기가 있지만 말하기에는 고쳐 말하기가 없다. 따라서 구술평가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수업 때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준다. 준비 시간에 답변 내용을 모둠별로 연습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면 좋다. 서로 답변 시간을 점검해 주고, 말의 내용이나 전달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모둠에서 연습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의 말하기 모습을 모방하며 배우게 된다. 친구의 말하기를 평가하고, 자신의 말하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말을 구성하는 능력, 말의 전달력이 향상된다.

구술평가의 평가 기준은 간단하다. 말의 내용, 말의 전달력이다. 듣기 태도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말을 듣는 데 집중하는가’를 기준으로 통과/미통과로 한다. 시간은 평가 기준

표3 - 구술평가 평가 기준 예시

	말의 내용	말의 전달력
평가 기준	- 질문에 맞게 대답하는가 -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 판단 근거가 적절한가	- 답변이 막힘없이 자연스러운가 -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는가
• 듣기 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경청하는가 (P/NP) • 시간: 1분 ±20초 (1분 30초를 넘어가면 중지함)		



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으로 넣는다. 평가 기준을 <표3>과 같이 할 수 있다.

채점 기준표(루브릭)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다. 채점 기준표가 있으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 선생님이 함께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채점 기준을 공유하기도 좋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미리 채점 기준표를 제공하면 학생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 이해하고, 자기 점검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루브릭과 책의 유형별 구술평가 문제 등 구술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함께 여는 국어교육> 146(여름호)에 자세히 나와 있다.

평가 현장에 긴장이 넘치지만 학생들은 준비하며 함께 웃었고, 평가 결과는 변별력이 있지만 낙오되는 학생이 없었다. 다시 시도하고 싶은 평가라는 건 평가 도구가 누릴 수 있는 영예가 아닐까? 다음에도 구술평가를 하고 싶다.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

진화하는 사이버·학교폭력, 어디까지 왔나



1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의 주제발표 모습



2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토크콘서트 현장

학 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도 확대되며 폭력 형태가 다양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와 11월 3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는 학생 사이버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2021년 5월부터 구성·운영해 온 협의체다.

사이버폭력 개념 모호… 명확한 기준·단호한 대응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문화와 교육·제도(법) 관점으로 나누어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기조 강연에서 범죄대응시스템과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대응 방식을 비교하고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이 늘어난 것은 물리적 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현 상황을 바라봤다. 다만,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현재 사이버·학교폭력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며 광범위한 폭력의 개념은 현실 적용 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책임이나 학교의 공식적인 조치가 따르게 되는 수준의 괴롭힘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책임지게 할 단호한 공식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이버폭력은 기술·문화 발달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기존 폭력과는 원인과 형태도 다르다. 정여주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술·문화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을 분석하고, 사이버 세계 속 청소년들의 특징과 사이버폭력의 유형 등을 분석했다. 특히, 정 교수는 사이버 세계 속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사이버 세계 속에서 찾는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안에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파편화될 수 있

는데, 게임, SNS 등에서 보이는 모습이 각기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속에서 맺어진 관계는 망설임 없이 형성될 수 있고,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간 내적인 공격성이 쉽게 올라오기도 한다. 이런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플레이밍(인터넷 공간 속에서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짧고 뜨겁게 일어나는 싸움), 폭로·공개, 아이디 도용 숨기기, 사기, 스토킹, 소외, 성희롱·성폭력, 해킹 등을 꼽을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사이버폭력 피해·가해·목격 학생의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경우 유형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해 학생을 참여 형태에 따라 ‘복수심을 보이는 천사’, ‘권력에 굶주린 아이’, ‘짓곳은 아이’,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션별 토론에 참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미디어에 따라 폭력 양상이 다르다.”라며 폭력에 해당하는 말뭉치를 만들어 사이버폭력을 거르는 등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젠 다른 시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며, 물리적 격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대응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해야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간접적·은밀한 폭력과 사이버폭력 유형이 증가하고,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급 피해 응답률은 중학교급의 약 4배, 고등학

교급의 약 12배를 기록했다. 학교 밖 학교폭력 발생 장소로는 놀이터(11.1%)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8.5%)이 2위를 차지했다.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을 분석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비대면 수업 기간 사이버폭력이 최대로 증가했다.”라며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무부, 여가부 등 유관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 사전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폭력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 토론을 맡은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장난폭력과 같이 가해 이유가 없는 폭력 등 진화하는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이 못 따라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학교 교사 또한 “묻지마 폭력이 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 신고 이후 유관기관과 협업 단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화되고 있고,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 짓기도 어렵다.”라며 갈등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춰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가 토론 이후 학교폭력 예방 학생 참여 활동인 ‘어울림 학생 지원단’ 공연과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

REPORT
01.

숲을 담은 ‘생태숲학교’에 가다



도심 속 숲을 품은 학교, 김포 고창초

숲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찬 곳이다. 숲의 환경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숲은 해양 다음으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이다. 숲 1ha는 하루 44명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1년 동안 50톤의 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숲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터전이 된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 숲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도심 속에 숲을 품고 있는 학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경기도 김포의 생태숲학교 고창초등학교(교장 이철희)이다.

‘생태숲학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경기미래학교이다. 경기도교

육청의 지원하에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를 선도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특히 고창초등학교는 설계 및 식재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참여형 방식을 도입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생태숲을 조성하였다. 고창초등학교 생태 공간의 면적은 7,149㎡로 전체 면적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학교 숲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을 즐기는 동시에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 놀이터,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는 텃밭,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도토리 동산 등 다양한 생태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학교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작은 쪽문이다. 고창초등학교에서는 이를 ‘두발로문’이라고 부른다. 두 발로 걸어서 등교하자는 의미이다. 두발로문은 고창초 생태교육의 시작이자 또한 자연과 함께한다는 교육철학을 상징한다. 이 쪽문으로 차는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쪽문으로 들어서면 숲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른바 숲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이다. 실제로 고창초등학교에서는 생태숲을 배경으로 한 등굣길 음악회가 연 2회 열리고 있다.

학교 시설 대부분은 환경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거대한 나무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을 주

는 꿈나무 놀이터, 숲속 동물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하늘해먹다람쥐통,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숲 그네에서 놀다 보면 학생들은 어느새 자연을 담고, 또 자연을 닮아가게 된다.

학교 안 생태 놀이 & 생태 엑스포 운영

고창초등학교 교육의 핵심은 바로 생태프로젝트에 있다. 일단 학교 차원에서는 생태 놀이와 생태 엑스포를 운영한다. 그리고 각 학년에서는 ‘생태’라는 대주제하에,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운영한다. 예를 들어, 3학년 교육과정에는 배추흰나비가 교과서에 나온다.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는 배추흰나비를 직접 학교 숲에서 키워본다. 음악 시간에는 나비와 관련된 노래를 개사하고 뮤직비디오를 만들며, 국어 시간에는 나비에 관한 책을 읽고, 생명 존중 일기를 쓰는 식이다. ‘나비’라는 하나의 주제를 활용하여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은 학교에서만 국한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생태 관련 체험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올해도 고창초등학교에서는 2023 김포융합체험한마당에서 곤충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가을 숲 저금통, 에코백 곤충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생태환경교육의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철희 교장은 “우리 학교의 비전은 숲 안에 있는 사람, 사람 안에 있는 숲이다. 생태숲학교라는 멋진 환경과 잘 짜인 생태 교육과정의 융합을 통해 이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처럼 꾸밈없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을 더욱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숲학교, 고창초등학교에서 한국 교육의 푸른 빛 미래를 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②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달의 교육뉴스

vol.497 2023 DECEMBER

01.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02.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한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을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등에 나선다.

03. 대학생 주거비 부담 줄인다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해 공동으로 거주하는 행복기숙사(연합)가 서울 성북구에 개소했다.

2023년 5월 이곳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무상 제공한 국유지에 주택도시기금(국토부) 등을 포함한 사회진흥기금 총 399억 원으로 건립됐다.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하는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전기, 수도요금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9만 원대 수준으로 행복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이며,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 규모는 698명 356실로, 11월 10일 기준 72.9%인 509명이 입주해 있다.

04.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292개교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0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학교가 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9개 시도 292개교가 참여했으며,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을 정규수업, 방학 중 캠프 등에서 진행했다.

문화예술 전문가를 희망하는 농어촌 지역의 늘봄학교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원콜센터(☎041-850-6089)’로 문의하면 된다.

05.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2월 27일까지 신청하세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단가를 7.7%(30만 원) 인상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6. 과감하게 벽 허무는 대학개혁
본지정 평가 거쳐 10개 글로벌대학 지정·발표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벌대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 2023년 글로벌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벌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본지정 10개 대학은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받았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글로벌대학을 30개 내외로 지정하고,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투입,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07.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가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인터넷·이동통신에서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로 검색·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소통이 활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이 참여해 플랫폼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08.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수업 혁신 교사의 성장 스토리 방영

교육부는 1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총 16회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참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선생님들의 성장 이야기로 이뤄졌다. 동료 선생님들끼리 인공지능(AI)·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과 토의·토론,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

12월호 원고를 붙이면서(?)

학 생에게 편지를 받은 합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해주는 학 생이 있어 학교생활이 행복합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나름의 읽는 맛 이 있고, 깔끔하게 써 내려간 편지는 저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주곤 합니다. 가 끄 틀린 표현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눈이 멈추면 아쉬워집니다.

“선생님 3학년이 ㉠되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은, 처음 뵈 때부터 ㉢웬지 좋았어요.”

“도서관의 날 포스터를 학교 곳곳에 ㉣부치면서 모든 일에 진심인 선생님이 좋았어요.”

“선생님 ㉤오랫만에 편지를 씁니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 중 떠오른 문장입니다. 한컴오피스로 원고를 작 성 중인데 자동 수정이 됩니다. ㉠은 ‘되’와 ‘돼’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는 자리에 ‘되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돼’, 어색하면 ‘되’로 표현하면 됩니다. ㉡은 ‘게요’가 맞습니다. ‘께’는 ‘~에게’의 높임말 또는 ‘그때 그 시간 또는 장소에서 가 까운 범위’라는 뜻으로만 사용합니다. ㉢은 ‘웬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부치다’ 는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것을 뜻하고, ‘붙이다’는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을 가 지고 있어 ‘붙이면서’가 맞는 표현입니다. ㉤은 정말 자주 틀리는 표현입니다. 오 랫동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만’이 더 익숙해서 헷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라는 뜻을 가진 ‘오래간만’의 준말 ‘오랜만’이 맞 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전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성을 담 아 편지를 부쳐보세요. ㉦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 계획(23.11.7.)

끝까지 알차고 보람있게!

- ✓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 안전교육, 금융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전·건강 교육
전동킥보드타기 안전교육,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등

금융·경제·부동산 교육
불법금융사기예방 교육,
도박 문제 예방교육 등

장애인식·정보보호 교육
장애인식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선거·인권교육
랜선 보훈 역사여행,
조선왕실의 인장 프로그램 등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들Go! 보Go! 체험하Go!

- ✓ 학습자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 ✓ 참여가능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통일·보훈·독도교육
검찰체험관 견학 프로그램 등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생물자원관 탐방 등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
'꿈길', 'e청소년' 사이트,
서해어업관리단 진로체험 등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공개강의(KOCW)
전공 수업 맛보기 등

대학 연계 탐방 프로그램 20여개 대학의 전공소개 및 캠퍼스 투어 등

그리고 학년말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 안전!**

- ✓ 학생들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 을 운영합니다
-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

